

# 아동기의 부모 자녀 양육 태도와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Child-rearing Practices in Early Childhood and the Perceived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전임강사 문혁준

School of Human Ec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Full-time Instructor : Hyuk-Jun Moon

### ◀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child-rearing practices in early childhood and the perceived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Subjects were 322 students attending 4-year universities. The sample was 66.1% female and had a mean age of 19.9 years.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questionnaires and descriptiv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t-tests were used for data description and analysi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difference between boys and girls in terms of parental child-rearing practices perceived by children was found. Girls perceived their parents' child-rearing practices as being more positive in early childhood than those of boys.
- 2) The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in terms of the level of the self efficacy was not found.
- 3) The difference between paternal and maternal child-rearing practices perceived by children was found. Children perceived maternal child-rearing practices as being more positive in early childhood than paternal child-rearing practices.
- 4) Parental child-rearing practices in early childhood was related to the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Children who perceived their parents' child-rearing practices as being more positive in early childhood had a higher level of self-efficacy.

The results support the importance of parental child-rearing practices in early childhood on the developmental pathways of children.

## I. 서론

부모 자녀 양육 태도는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환경들 중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많은 연구 결과에서 입증되어 왔다(Hart, Dewolf, Wozniak, & Burts, 1992; Maccoby & Martin, 1983). 특히 아동기의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개개 아동이 소속한 사회의 효율적인 구성원으로 참여하는데 요구되는 지식, 기술, 특성을 습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가정 내에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장·단기적으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한 예로 부모가 아동기 자녀의 자율적 사고와 행동 그리고 자아통제력을 발달시키도록 장려하는 것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자녀의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반면에, 가정에서 무관심과 부적절한 자녀 양육 방법에 의해 형성된 공격적 또는 통제가 어려운 아동들의 부정적인 특성들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며, 교사로부터의 부정적 평가, 학교에서의 낮은 수행 정도, 학급친구로부터의 따돌림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aspi et al., 1987; Patterson et al., 1989).

또한 부모의 양육 태도 유형은 아동의 성격 형성, 행동, 정서, 인지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는데(Becker, 1964; Hurlock, 1978) 즉 아동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반응 정도, 양적·질적 차원에서의 물리적 환경의 제공 여부 그리고 아동의 탐색 행동에 대한 부모의 반응 유형은 아동의 사회성이나 인지 능력의 발달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Ainsworth & Bell, 1974).

과거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거칠고 학대적인 부모 양육 태도는 자녀의 문제 행동과 비행 행동, 심리적 불안정, 학업 중도 포기, 교우와의 원만치 못한 관계, 약물 남용 등을 포함한 발달상의 위협에 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특히 부모의 신체 체벌과 아동의 외적 문제 행동은 깊은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Deater-Deckard et al., 1996). 또한 무관심한 부모 밑에서 양육된 자녀는 사회적 자신감, 학업 성취도, 심리적 적

응도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며(Baumrind, 1991; Lamborn et al., 1991) 특히 무관심한 부모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욱 증가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Steinberg et al., 1994).

한편 권위가 있는 부모 밑에서 양육된 청소년은 심리·사회적 자신감과 학업성취도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이고, 내적 갈등과 문제 행동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aumrind 1989, 1991; Hein & Lewko, 1994; Lamborn et al., 1991; Paulson, 1994; Steinberg et al., 1992), 권위가 있는 부모의 경우 청소년의 도구적인 자신감(instrumental competence)을 증진시키는데 권위적인 부모 또는 방임적인 부모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aumrind, 1978, 1991). 이는 권위가 있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요구하는 내용과 자녀에게 보이는 반응의 특성이 청소년의 도구적인 자신감의 발달에 기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어 진다. 특히 도구적인 자신감이 있는 청소년은 타인 중심의 사고 방식, 규칙 준수, 독자적이며 주제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높다(Darling & Steinberg, 1993)는 측면에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인의 부모가 권위가 있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부모의 청소년보다 자신의 학업 능력에 대하여 더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며, 타인이 아닌 자신 스스로에 의지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Baumrind, 1991; Cooper et al., 1983; Lamborn et al., 1991; Steinberg et al., 1994). 뿐만 아니라 긍정적 부모 자녀 양육태도는 높은 협동심, 책임감, 적응력, 성취감, 자녀의 높은 복종 정도와 낮은 공격성,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 높은 사회적 자신감, 타인의 감정에 대한 높은 민감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효율적인 부모 자녀 양육태도 즉 효율적인 문제 해결과 상호지원은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일관적인 훈육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있어 큰 성공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Fauber et al., 1990). 또한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 태도, 목표, 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자신감과는 깊은 연관이 있으며(Abell et al., 1996), 특히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 반응적인 관계가 아동의 사회적 자신감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ize & Pettit, 1997). 아울러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이는 온정적인 양육태도와 심리적인 자율권의 부여는 아동의 심리적 성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Loebel et al., 1993).

이상과 같이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 유형은 아동의 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입증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에 와서 인지적 기반을 강조하는 추세에 따라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와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관련지어 몇몇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자기효능감이란 Bandura(1977)의 사회적 학습이론에서 최초로 언급되었으며, 인간의 행동 변화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결정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기효능감은 내적 요인으로써 현재 행동 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선택과 도전 상황에도 영향을 준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을 주어진 과제를 조직하고 수행하는데 있어 개인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며, 어떤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특정 행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예측으로 정의하였다. 즉 개인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이 얼마나 강하고 높게 인지하는가 하는 것이 행동 동기화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기효능감을 효능기대와 결과기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우선 효능기대는 어떤 개인이 특정 결과를 얻는데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로써 목표 설정, 활동과제의 선택, 노력의 정도, 과제에 대처하는 지속력 등의 행동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결과기대는 자신의 어떤 행동이 특정 결과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개인적 신념으로 설명하고 있다(Keyser & Barling, 1981).

자기효능감은 네가지 하위 영역 즉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귀인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우선 자신감은 개인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확신 또는 신념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자기조절효능감은 자기 조절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 기대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과제난이도 선호는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표출되며(Bandura, 1993), 개인이 어떤 과제를 쉽다고 생각하면 자기효능감 기대가 높아진다고 보았다(Bandura, 1982). 마지막으로 귀인은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 지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기적인 과정을 통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Weiner, 1980), 능력에 성공을 귀인 시킬 때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요약해보면, 높은 자기효능감을 갖고 있는 개인은 환경이 요구하는 도전을 이겨내려 더 노력하며 낮은 자기효능감을 갖고 있는 개인은 어려운 상황에서 회피하거나 쉽게 포기한다는 것이다(Bandura, 1982; Bandura & Schunk, 1981).

현재까지 자기효능감에 관련된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주로 지적과제의 성취와 관련 지어 이루어져 왔는데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예를 들면 한기숙(1994)은 자기효능감을 문제 해결 수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지적했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아동은 문제 상황에서 강한 자신감과 높은 문제 해결력을 보인 이미숙(1994)의 연구 결과에서도 아동이 지각한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지지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동료와의 상호적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능숙한 것으로 밝혀졌다(Perry et al., 1986; Wheeler & Ladd, 1982).

따라서 최근에는 개개인 지각하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찾기 위한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Bandura(1982)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다양한 경험은 개인적 효능감의 발달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공해주며, 자기효능감은 연령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발달하며 한 번 형성되어진 자기효능감의 증가는 다른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도 전이된다고 설명하였다.

생애 중에서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아동기는 많은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다양한 환경은 자기효능감의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희정(1992)은 아동의 자기효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아동기의 자기효능감의 형성은 일차적으로 가족내에서 이루어지며, 가족 중에서도 부모와의 관계에 의해 자녀는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았다(Bandura, 1982).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지적되었다(전인옥, 1997; 우희정 & 이숙, 199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용적·자율적 부모 양육 태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높게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윤병두, 1995),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 때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동영, 1997).

이상에서와 같이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기효능감에 관련된 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며 따라서 이 분야의 축적된 연구 결과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 태도 측면보다는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양육 태도에 대해 직접 평가하는 방법이 대부분이었다. 아울러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기 능력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신에 대해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감안하여 자신의 효능감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장 후 지각하는 자기효능감과 아동기의 부모의 양육 태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현대 가족에서는 과거에 비해 아동 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나 부모자녀양육태도의 연구에서 아버지를 연구대상으로 포함시킨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함께 고려하여 아동기의 부모 자녀 양육 태도와 성장 후 지각하는 자녀의 자기효능감간에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자녀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부모의 영향력을 살펴 보고자 한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자녀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의 부모 자녀 양육 태도에 있어 자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2. 대학생이 지각한 자기효능감 수준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3.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 양육 태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가?
4.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의 부모 자녀 양육 태도와 그들의 자기효능감 수준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충남 소재의 4년제 대학의 남녀 대학생 총 3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연구 대상의 평균 연령은 19.9세(SD=2.29)이며, 남학생이 109명(33.9%), 여학생이 231명(66.1%)이었다. 연구 대상의 아버지들의 평균 연령은 49.8세(SD=4.56)이며, 어머니들의 연령은 46.7세(SD=4.58)이었다. 연구 대상 부모의 절반 이상이 고졸 이상이었으며, 현재 아버지의 26.3%가 회사원이었으며, 어머니의 71.7%가 주부이었다. 과거 아버지의 직업은 33.1%가 회사원이었으며 어머니의 74.4%가 주부이었다. 과거에 78.3%가 중류층이었다고 보고하였으며 현재의 월 평균 가족 수입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가 41%로 가장 많았다.

질문지는 충남에 소재하는 3개 대학교를 임의로 선정한 후, 1999년 4, 5월 두 달에 걸쳐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420명의 학생들에게 배부되었다. 회수된 380명의 자료 중 부실하게 기재된 자료를 제외하고 322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각 척도들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s를 구하였다.

연구 문제 1, 2, 3을 분석하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부모 자녀 양육 태도와 자기효능감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2. 연구도구

1) 부모 양육 태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오성심, 이종승(1982)이 제작한 부모 양육 태도 지각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수용-적대', '자율-통제', '애정-방임', '성취-비성취'와 같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양극화되어, 각 차원별로 각각 15문항씩, 총 6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김은영(1996)의 연구에서 이 검사도구의 내적 타당도 실시 결과 요인부하량 값이 높은 41문항만을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양육 태도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인 경우에는 1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점을 주어 '수용-적대' 척도는 0-17점까지, '자율-통제' 척도는 0-13점까지, '애정-방임' 척도는 0-7점까지, '성취-비성취' 척도는 0-4점까지 얻을 수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태도의 각 차원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즉 수용, 자율, 애정, 성취적인 방향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말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태도의 전체 문항 수는 각각 41문항이며 도구 전체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alpha$ 는父의 경우 .88, 母의 경우 .89이다. 각 하위 요인별 문항수와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alpha$ 는 <표 1>과 같다.

<표 1> 측정도구의 문항수와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 )

| 척도                | 문항수 | 신뢰도 |
|-------------------|-----|-----|
| <b>아버지의 양육 태도</b> |     |     |
| 수용-적대             | 17  | .86 |
| 자율-통제             | 13  | .73 |
| 애정-방임             | 7   | .69 |
| 성취-비성취            | 4   | .48 |
| <b>어머니의 양육 태도</b> |     |     |
| 수용-적대             | 17  | .86 |
| 자율-통제             | 13  | .77 |
| 애정-방임             | 7   | .67 |
| 성취-비성취            | 4   | .40 |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차정은(1997)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귀인, 과제난이도 선호의 네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문항수는 48문항이며, 부정 문항을 역산해야 하는 문항은 19문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평정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전체 자기효능감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90이었다. 각 하위 요인별 문항수와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alpha$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도구의 문항수와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 )

| 척도      | 문항수 | 신뢰도 |
|---------|-----|-----|
| 자신감     | 14  | .77 |
| 자기조절효능감 | 19  | .87 |
| 귀인      | 6   | .42 |
| 과제난이도   | 9   | .69 |

III.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성별과 지각된 부모 자녀 양육 태도와 의 관계

자녀가 지각한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표 3> 아동 성별에 따라 지각된 부모 자녀 양육 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 양육 태도             | 성별     | 남(男)<br>평균(SD) | 여(女)<br>평균(SD) | t값      |
|-------------------|--------|----------------|----------------|---------|
| <b>아버지의 양육 태도</b> | 수용-적대  | 25.72(7.48)    | 28.04(7.31)    | -2.67** |
|                   | 자율-통제  | 12.22(4.12)    | 13.34(3.73)    | -2.47*  |
|                   | 애정-방임  | 7.39(2.86)     | 8.20(2.97)     | -2.34*  |
|                   | 애정-방임  | 3.67(1.85)     | 3.92(2.00)     | -1.07   |
|                   | 성취-비성취 | 2.44(.80)      | 2.58(.72)      | -1.56   |
| <b>어머니의 양육 태도</b> | 수용-적대  | 26.81(6.89)    | 28.90(7.67)    | -2.39*  |
|                   | 자율-통제  | 12.57(3.70)    | 13.22(3.96)    | -1.42   |
|                   | 자율-통제  | 6.89(2.87)     | 7.71(3.33)     | -2.20*  |
|                   | 애정-방임  | 4.97(1.51)     | 5.39(1.67)     | -2.17*  |
|                   | 성취-비성취 | 2.38(.83)      | 2.58(.67)      | -2.40*  |

\*p<.05, \*\* p<.01, \*\*\*p<.001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여아(父: M=28.04; 母: M=28.90)가 남아(父: M=25.72; 母: M=26.81)보다 부모의 양육 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보다 여아가 부모의 양육 태도를 더 수용적이고 자율적이고 애정적이며 성취 지향적인 것으로 지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t 검증 결과 아버지 양육 태도의 하위 영역에서는 수용-적대( $t=-2.47, p<.05$ ), 자율-통제( $t=-2.34, p<.05$ ) 영역에서만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서는 자율-통제( $t=-2.20, p<.05$ ), 애정-방임( $t=-2.17, p<.05$ ), 성취-비성취( $t=-2.40, p<.05$ )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아버지의 양육 태도의 경우 남아보다 여아가 더 수용적이고 자율적으로 지각하며,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해서는 더 자율적이고 애정적이며 성취지향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자기효능감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남아와 여아가 지각하는 전반적인 자기효능감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단지 자기효능감을 하위 영역별로 성별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자신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10수준에서 남아(M=46.03)가 여아(M= 44.47)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 아동 성별에 따라 지각된 자기효능감

| 성별      | 남(男)          | 여(女)          | t값    |
|---------|---------------|---------------|-------|
| 자기효능감   | 평균(SD)        | 평균(SD)        |       |
| 자기효능감   | 156.28(21.89) | 153.85(20.26) | .99   |
| 자신감     | 46.03( 7.77)  | 44.47( 7.33)  | 1.77+ |
| 자기조절효능감 | 62.09(11.44)  | 61.13( 9.83)  | .79   |
| 귀인      | 20.53( 3.68)  | 20.84( 2.75)  | -.85  |
| 과제난이도   | 27.62( 4.75)  | 27.41( 5.24)  | .35   |

+  $p<.10$

## 3.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태도의 차이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태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t 검증 결과 아동이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아버지의 양육 태도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함을 알 수 있으며(父: M=27.25; 母: M=28.19,  $t=-2.48, p<.05$ ) 하위 영역별로 보면 아버지의 양육 태도를 어머니의 양육 태도보다 더 자율적(父: M=7.93; 母: M= 7.43)이라고 지각한 반면에,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아버지의 양육 태도보다 더 수용적(父: M=12.96; 母: M= 13.00)이라고 지각함을 알 수 있다.

<표 5>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태도

| 성별     | 아버지의 양육 태도  | 어머니의 양육 태도  | t값        |
|--------|-------------|-------------|-----------|
| 양육 태도  | 평균(SD)      | 평균(SD)      |           |
| 수용-적대  | 12.96(3.89) | 13.00(3.88) | -.16      |
| 자율-통제  | 7.93(2.95)  | 7.43(3.20)  | 3.32**    |
| 애정-방임  | 3.83(1.95)  | 5.25(1.63)  | -14.65*** |
| 성취-비성취 | 2.53(.749)  | 2.51(.733)  | .62       |
| 전체     | 27.25(7.44) | 28.19(7.47) | -2.48*    |

\* $p<.05$ , \*\*  $p<.01$ , \*\*\* $p<.001$

## 4. 부모 자녀 양육 태도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부모 자녀 양육 태도와 자기효능감 수준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와 아동의 전반적 자기효능감간에는 .29(父)와 .27(母)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즉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지각될 수록 성장 후 자녀의 자기효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자녀 양육 태도 하위 영역과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수용-적대, 자율-통제, 애정-방임, 성취-비성취적인 양육 태도는 자신감, 자

〈표 6〉 부모 자녀 양육 태도와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계수

| 양육태도             | 효능감 | 자기효능감  | 자심감    | 자기조절효능감 | 귀인     | 과제난이도 선호 |
|------------------|-----|--------|--------|---------|--------|----------|
| <b>아버지의 양육태도</b> |     | .29*** | .26*** | .25***  | .14*   | .20***   |
| 수용-적대            |     | .24*** | .24*** | .20***  | .12*   | .15**    |
| 자율-통제            |     | .22*** | .19**  | .19**   | .08    | .19**    |
| 애정·방임            |     | .19**  | .15**  | .19**   | .08    | .13**    |
| 성취-비성취           |     | .23*** | .18**  | .19**   | .18**  | .17**    |
| <b>어머니의 양육태도</b> |     | .27*** | .23*** | .24***  | .14*   | .26***   |
| 수용-적대            |     | .24*** | .24*** | .20***  | .12*   | .15**    |
| 자율-통제            |     | .17**  | .14*   | .16**   | .07    | .10      |
| 애정-방임            |     | .21*** | .14*   | .19**   | .15**  | .18**    |
| 성취-비성취           |     | .24*** | .16**  | .20***  | .20*** | .21***   |

\*p<.05, \*\*p<.01, \*\*\*p<.001

기조절효능감, 귀인, 과제난이도 선호와 .07~.29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즉 부모의 양육 태도가 수용적, 자율적, 애정적, 성취지향적 일수록 성장 후 아동의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은 높고, 능력에 성공을 귀인 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과제를 선택하는데 있어 도전적인 선택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아의 경우 남아보다 아버지의 양육 태도를 더 수용적이며 자율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양육 태도는 더 자율적이며 애정적이며 성취지향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이수연(1985)의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의 양육 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와 여아가 남아보다 애정, 자율, 합리, 성취 차원의 부모 양육 행동에서 높게 지각하였다는 김숙경(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된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 밝힌 부모가 지각한 자녀 양육 태도에서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차이가 없으며, 아버지의 양육 태도는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한다

는 연구결과와 불일치한다(연미희, 1998). 또한 아버지는 아동이 남아인 경우 여아보다 더 효율적인 양육 태도를 취한다는 것과(문혁준, 1998) 여아보다 남아에게 부모들이 성취력을 더 강조한다(Lytton & Romney, 1991)는 선행연구들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와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 양육태도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자기효능감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성별은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기효능감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여러 선행 연구들(이동영, 1997; 전인옥, 1997; 우희정, 이숙, 1994; Wheeler & Ladd, 1982)의 결과와 일치하는 반면에, 지적 활동에 관련된 자기효능감 정도와 직업에 대한 열망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와는 일치되지 않는 결과이다(권순명, 1993; Dentler, 1984; Parsons et al., 1976). 또한 이 결과는 과거의 전통적인 성역할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남녀 역할의 평등을 강조하는 현대 산업사회의 특성이 신세대의 가치관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셋째, 지각된 부모의 양육 태도의 차이에서 자녀는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아버지의 양육 태도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아

버지와 어머니의 훈육 방법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힘에 의존하는 훈육 태도를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어머니는 연역적인 훈육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Hart, 1994).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버지의 양육태도보다 더 애정적이라고 자녀에게 지각되는 것은 실제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 양육의 많은 부분을 어머니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결과는 1세에서 4세 사이의 아동을 둔 어머니의 경우 아버지보다 자녀 양육의 점수에서 월등히 높다는(Bentley, 1991) 선행 연구결과에서 지지해 주듯 자녀 양육에 있어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넷째,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기효능감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 아동이 자기효능감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즉 아동기의 부모자녀 양육 태도와 자기효능감과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 자녀 양육 태도의 하위 영역 즉 수용-적대, 자율-통제, 애정-방임, 성취-비성취적인 양육 태도와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 즉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귀인, 과제난이도 선호간에도 깊은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를 수용적·자율적으로 양육하고 지도할 때 자녀들의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게 나타난 선행 연구결과(윤병두, 1995)와 일치하며, 온정과 통제가 적절히 균형 잡힌 민주적 양육 유형이 온정이 낮고 통제가 강한 권위적 양육 유형에 비해 높은 자기역량감을 초래한다는 선행 연구결과(공인숙, 1989)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아동의 지각된 자기효능감 수준에 있어 어머니의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태도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기의 부모 자녀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효능감 형성 및 발달에 장기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높은 자기효능감 형성을 위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동시에 포함한 체계적인 부모 교육이 요청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에 기초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집에 있어서 연구대상이 충남지역에 국한되었고 횡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따르며,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의 발달적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종단적 연구나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한 각 시기별 비교 분석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단일 변인인 부모 자녀 양육 태도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머물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아동의 성격 등 내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자기효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개인적 선행 요인들에 대해 좀 더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모효능감이 자녀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문혁준, 1999)를 바탕으로 어머니가 지각하는 자기효능감과 부모양육태도 그리고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관계와 자기효능감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또한 변인들간의 인과적 관계를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 양육 태도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이 결과는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 양육 태도와 다를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 자신이 지각하는 자녀 양육 태도와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 태도를 비교 조사하고 그에 따른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인간발달은 가족 상호작용만의 산물이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접근에 기초하여, 아동의 자기효능감 발달 과정에서 부모 요인 뿐만 아니라 심리적 자원이 될 수 있는 친구, 교사, 또는 친척 등 지원 체계가 자기효능감의 발달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밝혀줄 연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개개의 아동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교우관계만족도 등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고찰하는



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과거의 부모 양육 태도를 기억함에 있어 현재 부모-자녀와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과거의 경험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제약이 따른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따르며 반복 연구가 요망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1.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있어 자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
2. 자녀가 지각하는 자기효능감의 수준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
3.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다르게 지각하며,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아버지의 양육 태도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한다.
4. 아동기의 부모 양육 태도가 성장 후 자녀가 지각하는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 ■ 참고문헌

- 1) 권순명(1993). 지각된 양육 경험과 자아정체감 및 통제 귀인과의 관계 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아동학회지, 10(1), 64-78.
- 3) 김숙경(1987). 외동아와 형제아의 모-자녀관계 및 사회성에 관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은영(1996). 대학생의 나르시시즘 성향과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 5) 문혁준(1998).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관련된 생태학적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1), 91-101.
- 6) \_\_\_\_\_(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100-112.
- 7) 연미희(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7), 111-122.
- 8) 오성심,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행동과학연구노우트, 11.
- 9) 우희정(1992). 아동의 자기효능감 발달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5-25.
- 10) 우희정, 이숙(1994).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간의 인과모형탐색. 아동학회지, 15(1), 71-90.
- 11) 윤병두(199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동의 욕구 충족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이동영(1997).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이수연(1985).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동의 욕구 충족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이미숙(1994). 자기효능감이 수학 불안 및 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전인옥(1997). 어머니의 교육신념과 자기효능감,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24, 657-684.
- 16) 차정은(1997). 일반적 자기 효능감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한기숙(1994).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수행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Abell, E., Clawson, M., Washington, W. N., Bost, K. K., & Vaugh, B. E. (1996). Parenting value, attitudes, behaviors, and goals of African American mothers from low-income population in relations to social and societal contexts, *Journal of Family Issues*, 17, 593-613.
- 19) Ainsworth, M. D. S., & Bell, S. M. (1974).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L. Connolly & J. Bruner(Eds.),

- The Growth of Competence*(pp. 97-118). London: Academic Press.
- 20)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21)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 22)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23)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 2, 117-148.
  - 24) Bandura, A., & Schunk, D. H. (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3), 586-598.
  - 25) Baumrind, D. (1978). Parental disciplinary practices and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Youth and Society*, 9, 239-276.
  - 26) Baumrind, D. (1989). Rearing competent children. In W. Damon (Ed.), *Child Development Today and Tomorrow* (pp. 349-378). San Francisco: Jossey-Bass.
  - 27)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s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 56-95.
  - 28)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29) Bentley, K. S. (1991). Mothers and fathers of young children: Comparison of parenting styles. *Psychological Reports*, 69, 320-322.
  - 30)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31) Caspi, A., Elder, G. H., & Bem, D. J. (1987). Moving against the world: Life course patterns of explosiv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3, 308-313.
  - 32) Cooper, C. R., Grotevant, H. D., & Condon, S. M. (1983). Individuality and connectedness in the family as a context for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and role-taking skill. In H. D. Grotevant & C. R. Cooper(Ed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Vol 22, Adolescent development in the family*(pp. 43-59). San Francisco: Jossey-Bass.
  - 33)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Child Development*, 113, 487-496.
  - 34) Deater-Deckard, K., Dodge, K. A., Bates, J. E., & Pettit, G. S. (1996). Physical discipline among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mothers: Links to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32, 1065-1072.
  - 35) Dentler, D. J. (1984). Self-efficacy as related to career aspirations based on the educational quality assessment inventory. Ph. D.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36) Fauber, R., Forehand, R., Thomas, A. M., & Wierson, J. (1990). A mediational model of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 adjustment in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The role of disrupted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1, 1112-1123.
  - 37) Hart, C. H. (1994). Comparative study of maternal and paternal disciplinary strategies. *Psychological Reports*, 74, 495-498.
  - 38) Hart, C. H., Dewolf, D. M., Wozniak, P., & Burts, D. C. (1992). Maternal and paternal disciplinary styles: Relations with preschoolers' playground behavioral orientation and peer status. *Child Development*, 63, 879-892.
  - 39) Hein, C., & Lewko, J. H. (1994). Gender

- differences in factors related to parenting style: A study of high performing science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9, 262-281.
- 40) Hurlock, E. B. (1978). *Child Development*(6<sup>th</sup> ed.). New York: McGraw Hill Co.
- 41) Keyser, V., & Barling J. (1981). Determinants of children's self-efficacy beliefs in academic environment. *Cognitive Therapy & Research*, 5, 29-40.
- 42) Lamborn, S., Mounts, N., Steinberg, L., & Dornbusch, S. M. (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1049-1065.
- 43) Loeber, R., Wung, P., Keenan, K., Girous, B., Stouthamer-Loeber, M., Van Kammen, W. B., & Maughan, B. (1993). Developmental pathways in disruptive child behavior. *Developmental Pathology*, 5, 102-133.
- 44) Lytton, H., & Rommey, D. M.(1991). Parents'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boys and girl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9, 267-296.
- 45) Maccoby, E., & Martin, J.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P.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1-101). New York: Wiley.
- 46) Mize, J., & Pettit, G. S. (1997). Mothers' social coaching, mother-child relationship style, and children's peer competence: Is the medium the message? *Child Development*, 68, 291-311.
- 47) Parsons, J. E., Ruble, D. N., Hodges, K. L., & Small, A. W. (1976). Cognitive developmental factors in emerging sex differences in achievement related expectancies. *Journal of Social Issues*, 32, 47-62.
- 48) Patterson, G. R., DeBaryshe, B. D., & Ramsey, E.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329-335.
- 49) Paulson, S. E. (1994). Relations of parenting style and parental involvement with ninth-grade students' achievemen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 250-267.
- 50) Perry, D. G., Perry, L. C., & Rasmussen, P. (1986). Cognitive social learning mediators of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57, 700-711.
- 51) Steinberg, L., Lamborn, S. D., Darling, N., Mounts, N. S., & Dornbusch, S. M. (1994). Over-time changes in adjustment and competence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5, 754-770.
- 52) Steinberg, L., Lamborn, S. D., Dornbusch, S. M., & Darling, N. (1992). Impact of parenting practices on adolescent achievement: Authoritative parenting, school involvement, and encouragement to succeed. *Child Development*, 63, 1266-1281.
- 53) Weiner, B. (1980). *Human Motivation*. NY: Rinehart & Winston.
- 54) Wheeler, V. A., & Ladd, G. W. (1982). Assessment of children's self-efficacy for social interactions with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8, 795-805.